



숫자로 본 7월 활약상
 0.379 타율
 0.443 출루율
 0.621 장타율
 3 홈런 9 타점

强했다, 7월의 강정호 품었다, 이달의 신인상

MLB, 최희섭 이어 광주일고 출신 두번째 영광

광주일고 출신의 두 번째 '이달의 신인'이 탄생했다.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는 거포 강정호(28)가 내셔널리그 7월의 신인으로 뽑혔다. 한국 선수가 '이달의 신인'으로 뽑히기는 2003년 내셔널리그 4월의 신인이 된 최희섭(당시 시카고 컵스·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 이어 12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광주일고를 대표하는 두 거포가 12년 차이를 두고 '이달의 신인'이 됐다.

절친한 친구로 2013년 한국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첫 선수인 왼손 투수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도 못 해낸 일이다.

파이리츠 소속으로 이 상을 마지막으로 받은 선수는 현재 팀의 에이스로 성장한 게리 콜(2013년 9월)이다.

류현진에 이어 한국프로야구에서 빅리그로 직행한 두 번째 선수이자 첫 야수인 강정호는 시즌 초반 불규칙한 출장에도 타격각각을 잃지 않고 빅리그 적응력을 키웠다. 그러다가 조시 해리스와 조디 머서 두 내야수가 부상으로 차례로 전역에서 이탈한 틈을 타 주전 내야수로 타순의 한 자리를 확실하게 꿰찼다.

3루수와 유격수로 출전한 강정호는 7월에만 타율 0.379(87타수 33안타)를 치고 홈런 3방에 9타점을 올리며 팀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출루율은 0.443, 장타율은 0.621을 기록하고 볼방망이로 매서운 타격을 뽐냈다. 2루타 8개, 3루타 2개를

합치면 장타만 13개를 쳤다. 장타 13개는 7월 내셔널리그 전체 타자 중 공동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강정호가 7월 31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3타석 연속 2루타를 터뜨려 올 시즌 6번째로 한 경기 안타 3개를 쳤고, 득점도 2개나 올려 5-4로 이기는 데 앞장섰다고 평했다.

7월 28~29일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시즌 처음으로 이를 연속 홈런을 날려 역시 팀 승리에 힘을 보탤때면서 특히 7월 28일 올해 올스타전에 출전한 미네소타 마무리

투수 글렌 퍼킨스를 제물로 승부를 가르는 결승 솔로 안타를 그린 점에 주목했다.

뉴욕 메츠의 투수 노아 신더가드(2승 1패, 평균자책점 1.32),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크리스 헤스틴(3승 무패, 평균자책점 1.57),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랜던 그리척(타율 0.287, 홈런 4개, 15타점) 등 경쟁한 신인들이 있었으나 강정호가 선사한 '임팩트'를 넘지 못했다.

강정호는 7월의 자신의 성적을 새겨 특별히 제작된 트로피를 받는다. 주전으로 출전 경기 수를 늘린 강정호는 이번 주중 규정 타석을 채울 것으로 점쳐진다. 강정호는 전반기까지 타율 0.294, 홈런 8개, 35타점을 수확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나홀만에 또 '홈런포'

시즌 14호...6경기 연속 안타

후반기 타격감이 살아난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중요한 일전에서 승기를 잡는 시즌 14번째 홈런을 터뜨렸다.

추신수는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7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2로 앞선 1회 1사 1루의 첫 타석에서 우측 펜스를 시원하게 넘어가는 2점짜리 홈런(비거리 117m)을 쏘아 올렸다.

시즌 14번째 홈런으로 텍사스 이적 첫해

이던 지난해 기록한 13개를 1개 경신했다. 지난달 30일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왼손 투수 C.C.사바시아에게서 포물선을 그린 이래 나홀 만에 홈런을 추가한 추신수는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의 홈런으로 6-2로 점수를 벌린 텍사스는 3회 5점을 더 보탤 끝에 12-9로 승리했다.

텍사스는 이날 15안타를 몰아쳐 승부를 일찌감치 결정지었다.

주포 애드리안 벨트레는 올 시즌 팀의 두 번째이자 개인 통산 세 번째로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하고 승리의 수훈감으로 활약했다. /연합뉴스

세계야구선수권 2관왕 광주시청 기보배 귀국

“내년 리우올림픽 자신감”

2015 세계야구선수권(W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한 기보배(광주시청)가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기보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대회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이같이 말했다고 대한야구협회가 전했다.

2012 런던올림픽 2관왕이기도 한 기보배는 지난해 국가대표에서 탈락했던 아픔을 딛고 올해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관왕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개인전과 혼성팀전 우승을 차지했다.

기보배는 세계선수권에서 2011년 혼성팀전, 2013년 혼성팀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땀지만 개인전과는 인연이 없었던 데 대해 “개인전 메달이 없어 그동안 너무

아쉬웠다”면서 “이번 금메달로 열심히 준비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리커브 부문에 걸린 금메달 5개 중 4개를 휩쓸며 ‘세계 최강’ 실력을 재확인하는 등 금메달 6개, 동메달 3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기보배(광주시청)뿐 아니라 김우진(정주시청), 구본찬(안동대), 김윤희(하이트진로) 등 총 4명이 2관왕에 올랐다.

4년만에 세계선수권 남자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김우진은 “4년간 큰 대회에서 잠적한 것처럼 부진했는데 한번에 털어낸 느낌”이라면서 “부족했던 것이 꼭 잔 것 같고 살아 숨쉬는 것 같다. 이 느낌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윤희는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을 따고 2관왕이 된 것이 정말 믿기지 않고 너무 영광스럽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월요일 경기’ 부활

KBO, 8일부터 내달 6일까지

프로야구 일정 조화를 위해 ‘월요일 경기’가 부활한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4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회의실에서 프로야구 10개 구단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5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토·일요일 경기가 우선으로 취소될 경우, 이어지는 월요일에 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월요일 경기”는 오는 8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를 대상으로 하며, 주중 취소 경기를 포함해 9월 15일 이후 편성되는 우선 잔여 경기 일정은 별도의 시행 계획에 따라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0일부터 야구 시즌 월요일이 펼쳐질 수도 있다. 한편 올 시즌 비로 취소된 경기는 총 62경기다. KIA는 13경기(홈 7경기)가 안개와 비로 취소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 호랑이 굴에 ‘나도 있소’

고졸 2년차 공·수 맹활약 KIA 유격수 자리 꿰차

‘호랑이 굴단’의 고졸 2년차 유격수 박찬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후반기 팀의 질주 속에 박찬호의 실력도 일취월장하면서 웃음이 떠나질 않고 있다.

“야구가 재미있다. 행복하다”는 야수 막내 박찬호는 공·수에서 부쩍 실력이 늘었다. 빠른 송구 동작은 아마시절부터 소문이 났다. 지난 연승 기간 몸을 날리는 수비 속에, 자동 아웃이었던 타석에서도 끈질긴 승부와 안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외향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속속 실력을 뽐내며 있는 중이다. 김선빈·안치홍의 군 공백으로 찾아온 기회, 세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올 시즌을 앞두고 박찬호는 “기회를 놓치면 실력이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야구를 그만둘 생각으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오키나와 캠프 중에도 짐을 싣 박찬호는 5월 12일 처음 1군에 등록됐다. 주로 대주자로 나서 10타수 1안타(0.100), 3득점만 남기고 25일 엔트리까 말소됐다.

첫 실패. 박찬호는 준비 잘해서 곧 돌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김기태 감독에게 “2주 뒤에 다시 불러주시는 거냐?”면서 남다른 인사를 하고 떠난 박찬호는 계획보다 늦은 6월 27일 다시 부름을 받았다. 이번에는 3경기에만 등장하고 다시 2군행이 됐다.

7월 22일 세 번째 기회가 왔다. “한번은 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비장한 표정으로 돌아온 박찬호는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앞만 보던 박찬호에게 야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야구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7월 29일 SK전 1사2루에서 명볼 타구를 잡아 1루가 아닌 3루로 송구했다. 결과는 야수선택으로 끝났지만 박찬호의 시도가 시작됐다. 이후 자신있게 도전을 하면서 성공적인 플레이도 만들었다. 지난 주말 한화전 수비는 진기명기에 가까웠다.

박찬호는 “사실 잡아놓고 감탄을 했다. 놀랐기보다는 이것은 진짜 맛있는 생각이었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 김민호 수비 코치에게 칭찬도 받았다. ‘끝내기 비디오 판독’ 경기에서 병살 플레이를 함축한 박찬호는 “많이 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려고 한다. 코치님께서 항상 낮게 던져서, 뺏아서 잡으면 되니까 바닥에 꽂아도 된다고 하셨다. 그런 생각으로 던졌다”고 설명했다.

타격에 대한 마인드도 달라졌다. 씩씩한 후배 황대인에게 배우기도 했다.

박찬호는 “삼진 먹지 말자며 직구든 변화구든 맞추려고만 하니가 좋지 않은 볼에 손이 나갔다. 한 타석에 직구 하나는 올 테니까 그냥 돌려주고 생각을 했다. 대인이를 보면서도 배웠다. 쫓겨다니는 느낌이 안들었다. 김광현 선배에게 우중근 2루타를 치는 것을 보면서 느낌이 왔다”며 “내 스윙을 하자며 가운데만 보고 치니까 안 속게 됐다. 또 안 좋은 볼을 잡으니까 상대가 가운데로 공을 던지게 되고, 안타를 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제 막 야구에 눈을 뜬 막내의 성장기가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